

GANGJIN 

Web Contents



목차

목차	2
기사자료	3
유년시절 '시인의 꿈' 이룰래요 (2020.6.3. 광주타임즈)	3
첨부파일(1)	3

유년시절 '시인의 꿈' 이룰래요 (2020.6.3. 광주타임즈)

작성일 2020.06.04 09:26 등록자 시문학파기념관 조회수 205

첨부파일(1) 시인학교.jpg 61 hit/539.9 KB 다운로드

광전매일신문

2020년 06월 03일 (수)

강진군 “소년·소녀 때 꿈 ‘시인의꿈’ 이룰래요”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영랑 실버 시인학교’ 열기 후끈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영랑 실버 시인학교’가 지난 1일 본격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에 주소를 둔 60~75세 어르신 20명을 정원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접수 받았으나 희망자가 폭주해 2개 반(40명)으로 늘려 재편성했다.

이달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오전반 10시, 오후반 1시 30분) 총 25회에 걸쳐 진행되는 ‘영랑 실버 시인학교’는 김진기 시문학파기념관의 문학 기초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신달자 시인 등 여섯 차례의 인기자가 특강과 유현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정관웅 전남문인협회 부회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 창작 이론과 실기 등을 지도한다. 특히 강의실 중심의 학습에서 벗어

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방식인 ‘나를 찾아 떠나는 문학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과와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고, 11월 23일 종강식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차시 낭송회의 밤 등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2020 생생문화재 ‘더 삼 252 영랑생가’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랑 실버 시인학교’는 지역민들에게 영랑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심어준은 물론 시적 감성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승욱 군수는 “유년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던 ‘시인의 꿈’을 늦게나마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영랑 실버 시인학교를 개설했다”면서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생생사업의 취



지를 충분히 살려내 지역민들에게 영랑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더 삼 252 영랑생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총 11억4천만

원)돼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 영랑감성 아카데미,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주민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순정실 기자

광주타임즈

2020년 06월 03일 (수)

“유년시절 ‘시인의 꿈’ 이룰래요”

강진 시문학파기념관 ‘영랑 실버 시인학교’ 개강...참여 희망자 폭주 11월까지 25회 진행...기초이론 강의·신달자 시인 등 인기자가 특강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영랑 실버 시인학교’가 지난 1일 본격 개강식을 갖고 운영에 들어갔다. 강진군에 주소를 둔 60~75세 어르신 20명을 정원으로 지난달 26일까지 접수 받았으나 희망자가 폭주해 2개 반(40명)으로 늘려 재편성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주 월요일(오전반 10시, 오후반 1시 30분) 총 25회에 걸쳐 진행되는 ‘영랑 실버 시인학교’는 김진기 시문학파기념관의 문학 기초이론 강의를 시작으로 신달자 시인 등 여섯 차례의 인기자가 특강과 유현 한국시조시인협회 이사·정관웅 전남문인협회 부회장이 강사로 참여해 시 창작 이론과 실기 등을 지도한다. 특히 강의실 중심의 학습에서 벗



강진군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영랑 실버 시인학교’가 지난 1일 이승욱 군수가 참석 가운데 개강식을 갖고 오는 11월까지 운영에 들어간다. /강진군 제공

어나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교육방식인 ‘나를 찾아 떠나는 문학 여행’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문학과와 거리감을 좁히는 계기를 마련했고, 11월 23일 종강식과 함께 출판기념회를 겸한 자차시 낭송회의 밤 등

을 계획하고 있다. 문화재청의 2020 생생문화재 ‘더 삼 252 영랑생가’ 일환으로 추진되는 ‘영랑 실버 시인학교’는 지역민들에게 영랑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심어준은 물론 시적 감성을 되살려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승욱 군수는 “유년시절 누구나 한 번쯤 꿈꾸었던 ‘시인의 꿈’을 늦게나마 이룰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코자 영랑 실버 시인학교를 개설했다”면서 “특히 이 프로그램은 문화재청 생생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살려내 지역민들에게 영랑생가의 문화재적 가치를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문학파기념관이 기획한 문화재청 생생문화재 ‘더 삼 252 영랑생가’는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총 11억4천만 원)돼 영랑생가 작은 음악회, 영랑감성아카데미, 영랑생가 사랑방 이야기 등의 프로그램을 주민주도형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어 영랑생가(국가민속문화재 제252호)의 문화재적 가치 창출은 물론 지역관광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진/순정실 기자

목록

COPYRIGHT © GANGJIN-GUN. ALL RIGHT
RESERVED.

GANGJIN

Web Contents

